



# 서울주보에 바라는 소망과 반응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주보 1979년 5월 27일 자 3면에 ‘서울주보 발행 1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눈에 띕니다.

통합 주보의 역할과 영향력 때문에 점차 개별적으로 주보를 발간하는 본당이 줄었습니다. 통합 주보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서울뿐 아니라 세계교회까지 소식을 전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당시 홍보국에서도 사목위원, 가정주부,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각계각층의 신자들이 주보에 바라는 소망과 바람들을 그대로 실은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획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지가 아니라 쌍방 소통의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홍보국을 운영하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상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와 남녀노소, 학생, 어린이까지 포함하려는 주보 편집진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기사를 보면 한 사목위원은 지금처럼 4면의 주보가 일간신문처럼 나오기를 기대하며 1년간 통합 주보의 하느님 말씀과 교회 소식의 충실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생의 기고도 특별히 마음을 끕니다. 그는 주보가 공동체성을 잘 드러내는 표지라고 언급합니다.

서울주보의 내용과 일관성 있는 구성은 교우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매체로 성장하고 매번 새로움을 선사해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 특집 《서울 주보 발행 1 주년을 맞이하여》

한 직장인은 전체 교회 소식을 좀 더 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있듯,

교회 안의 이모저모를 비추어 주는 것을 주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주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영적 묵상을 안내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당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의 많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특집에 담긴 신자들의 소망과 바람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보를 만드는 이들은 이러한 신자들의 소망과 바람을 현실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주보는 부수가 많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면도 8면 내지 12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주보는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내용 면에서도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주보에 바라는 신자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주보는 신자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매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 높은 내용뿐 아니라 다양해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효과적인 전파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서울주보의 운영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